

## “홀몸노인의 약물남용 막아 건강 돕는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제공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인 코디네이터(오른쪽)가 복약 현황판을 통해 올바른 약 복용법을 알려주는 모습과, 2017년 5월 17일 안성 팜랜드에서 봉사자와 대상자가 함께한 날들이.

서울 시흥동에서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박미자(가명·84) 씨는 고혈압과 관절염, 당뇨병, 허리디스크 등 여러 병을 앓고 있다. 먹어야 할 약이 많다보니 약을 제대로 먹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잦다. 아침에 먹을 약을 이미 먹었으면서도 복용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먹기도 한다. 이러한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서울시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구자훈)에서는 2016년부터 ‘노노(老老)케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6년 7월부터 2년째 시행 중인 이 사업은 건강한 노인 자원봉사자 15명을 약물관리 코디네이터(코디)로 양성한 뒤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30명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디들은 금천구 보건소와 약사회, 그리고 노인상담법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고 각각 2명의 홀몸노인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독거노인들이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 1회 전화통화와 월 2회 방문을 통해 친분을 쌓아 코디들의 연락이 없으면 오히려 허전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미자 씨의 코디는 박재희(73) 씨다. 박재희 씨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든 복약 현황판과 수납케이스를 활용해 박미자 씨가 복용하는 약을 관리했다. 즉, 복약 현황판에는 증상과

시간별로 약을 먹으면 스티커를 붙이고, 수납케이스에는 종류별로 약을 보관케 했다. 교육받은 대로 항생제를 중복 복용하지 않으며, 처방받은 약만 먹고 추가로 조제하지 않도록 안내도 했다. 서로 가까워지자 박미자 씨는 코디에게 병원과 약국에 갈 때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사업 담당자인 유민경(31) 사례관리팀장은 “독거노인과의 단순한 말벗에서 한 단계 나아간 사업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 약물 오·남용 관리는 대상자와 봉사자가 더 가까워지기 위한 매개일 뿐이다. 이를 통해 홀몸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면서 “반응이 좋아서 약국이나 보건소 등과 연계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2000년 10월 개관했으며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 중이다. 평생교육팀, 건강지원팀 등에서 43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1977년부터 4,370여 사회복지단체에 45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